

불신앙의 왕 사울과 복음의 왕 다윗 -복음으로 여는 사무엘상-

사무엘상 15:19-24, 빌립보서 2:5-11

정윤돈 목사님

계속해서 성경 66권을 순서대로 나누고 있다. 오늘은 사무엘상 말씀이다. 예정된 것도 아닌데, 오늘 제목이 '불신앙의 왕 사울과 복음의 왕 다윗'이다. 오늘 송과구 구의원 후보께서 오셨는데,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앞으로 교회 안에도 많은 분야의 지도자가 나와야 한다. 오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게 되시기를 축원한다.

서론 : 사무엘상의 내용

사무엘상에서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와 사무엘의 이야기가 전반부에 나오지만, 나머지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래서 '사무엘상 하'라고 하기보다는 '다윗서'라고 하면 더 맞을 정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부분에 나오는 사무엘의 이야기를 결코 무시할 수 없다. 한나는 남편 엘가나의 본처였지만 아이가 없었고, 후처 브닌나에게는 아이가 있었다. 그 브닌나가 계속 한나를 계속 격동시키는 것이다. 옆에서 많이 괴롭히니까, 사무엘상 1:6에,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와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될 정도였다. 아마도, '형님? 형님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만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말했을 수도 있다. 뒤집어지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선택했다가 응답을 받는다. 그런데 뒤에 또 시기하고 질투하는 인물이 나온다. 다윗을 시기하는 사울이다. 다윗이 전쟁을 하고 승리해서 오니까 하필 여자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사울은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러니까 시기가 일어나는 것이다. '저놈은 일개 장군이고 나는 왕인데.' 우리 같으면, "저렇게 좋은 부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텐데, 사울은 시기질투에 빠져 주목하게 된다. 그때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 한나는 격분했지만 성정으로 갔다. 무릎을 꿇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다. 한나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엘리 제사장이 와서 말한다. "왜 이렇게 크게 기도해요? 술 취했어요? 술주정은 다른 데 가서 해야죠." 영안 어두운 엘리가 그렇게 말했다. 여러분에게 내가 그랬으면 한 10년은 빠지지 않았겠는가? (웃음) 그런데 한나가 그러지 않고 자기의 사정을 엘리에게 말한 것이다. 그랬더니 영력이 부족했던 엘리조차도 감동을 받는다. "하나님이 너에게 응답하시고 자녀를 주실 것이다." 여러분, 목회자가 부족할수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는가? 목회자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감동하고 회개할 정도가 되면 된다.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많다. 이번에 제주 캠프도 30명이나 자원해서 참여하지 않나. 이런 내용이 사무엘상에 담겨 있는 것이다.

엄청나게 키가 크고 잘 생긴 사울이 어떤 잘못을 했기에 불행한 최후를 맞이했는가. 실수도 하고 잘못도 했던 다윗은 왜 좋은 왕으로 역사 속에 남게 되었는가. 이것을 오늘 나누어야 되겠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대단한 인물이 어처구니없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된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다. 인간은 다 연약하다. 그래서 복음으로, 언약의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울이 시기, 질투를 할 때 사탄이 확 역사했다. 자기 정신이 아니게 된다. 에베소서에서 보면 사탄이 정사와 권세 속에 임한다고 했다. 인류 역사를 보라. 그렇게 놀라운 지도자들이 얼마나 나쁜 것을 많이 하는가. 이 비밀을 알려주는 것이 성경 뿐이다. 거기에 흑암 세력이 임하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그렇게 몰고 가니까 따라가지 않을 수 없다. 울부, 함성을 깨뜨릴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복음 뿐이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탄, 마귀, 귀신을 섬기는 것이다. 그 운명, 사주팔자, 제앙을 꺾고 승리하는 길은 오직 예수 뿐이다. 내 친구가 하나님을 전혀 안 믿는 사람인데, 차를 샀다고 고사를 지낸다는 것이다. 너는 하나님도 안 믿는데 왜 고사 같은 것을 지내느냐 했더니, 지금까지 고사를 안 지내서 두 번이나 사고가 났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돼지머릿고기라도 얻어먹을까 해서 가 봤더니, A4용지에 돼지머리를 프린트해서 절하고 있더라. (웃음) 사람이 왜 그렇게 되는가. 그렇게 하나님을 안 믿어도 계속 사고가 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진리를 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명배 대가리가 필요 없다. 명주실도 부족도 필요없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우리는 자유하는 것이다. 우리는 사울을 통해 한 지도자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성공 중심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가를 알게 된다. 나는 모든 지도자들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보게 되기를 원한다. 우리 나라의 실제 역사책 중에서는 천 년 넘은 책이 없다. 그런데 성경은 3천 년 전에 기록되었다. 중국도 2500년 전의 기록은 없다. 성경이 기준 되어야 한다. 지금 세상은 잘못된 역사를 가르치고 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다윗은 3천 년 전 사람이다. 3천 년 전 한반도에는 뭐가 있었는가. 아무런 기록이 없다. 아브라함은 4천 년 전 사람이다. 중국에서 4천 년 전에는 아무런 기록이 없다. 당연한 것이다. 노아의 방주 이후 인류가 전 세계로 퍼져나갔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3천 년 전 왕조 이야기가 사무엘상하인데, 오늘 우리의 이야기처럼 읽어도 적용이 된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기준은 성경이어야 한다.

1. 사울의 잘못된 불신앙의 모습

(1) 사울은 물질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 하나님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얻은 노획물을 다 없애고 다 죽이라고 했다. 그러나 사울은 그 말씀을 어기고 살찌고 좋은 것을 남겨 두었다. 왜 하나님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얻은 정당한 전리품을 진멸하라고 하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달아보시는 것이다. 정치를 하는 이유가 나의 명예인가, 백성들을 위함인가. 목회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서인가. 생명을 살리기 위함인가. 아니면 나의 명예를 위함인가. 복지를 하는 것이 내가 먹고 살기 위함인가, 아니면 정말 생명을 살리고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함인가. 교육을 하고 교사를 하는 것이, 먹고 살기 위해 안정적인 직장이기 때문인가, 아니면 후대를 빠르게 교육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하나님은 그것을 저울질해 보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게 하신 것이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인데, 왜 그런가? 그 자녀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우선순위가 있지 않다. 다른 데서 잘 하고 부모님에게는 불효하면 순서가 틀렸지 않다. 효도가 틀렸다는 말이 아니다. 우선순위를 빠르게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복이 된다는 말이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천륜이다. 그 다음에 다른 것을 하는 것이다. 다른 것은 따라오는 것이다. 그래야 온전한 축복이 온다. 안 그러면 사탄이 역사한다. 불행이 온다. 자녀가 무너진다. 인간관계가 막살난다. 여러분, 자녀보다 하나님 중심이 되라. 그러면 자녀가 복을 받는다. 내 교회, 내 목회가 아니다. 생명을 사랑해야 한다. 그러면 전도가 되는 것이다. 의사가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병을 잘 고치면 돈은 따라온다. 사무엘상 15:9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사울과 백성이 각각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쓸데없는 것을 진멸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물질을 가치있게 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사무엘상 15:11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후회했다고 하신다. 강조를 한 것이다. 백성들이 정치적 짝은 것을 후회하게 되면 되겠는가. 사무엘은 직접 말한다. 사무엘상 15:19에,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와 목소리를 청중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돈 욕심, 이권에 급급하다. 오로지 돈만, 이권만 생각한다. 권력만 생각한다. 그래서 망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사울왕은 진실로 회개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경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음과 같이 변명한다. 사무엘상 15:20-21에, "나는 실로 여호와와 목소리를 청중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 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 왔나이다." 핑계를 백성에게 댈다. 왜 가지고 왔느냐, 하나님에게 드리려고,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했을 텐데 말이다. 성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다. "하나님, 제게 뭘 주시면 헌당하고 헌금하겠습니다." 목적이 정말 헌금인가, 부자 되는 것인가. 그런 약속을 하지 마라. 작은 것이라도 직접 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예전에 청년 두 사람이 이야기했다. "전도사님, 저희가 성공하면, 나중에 전도사님이 목회하실 때 마음껏 다니시도록 비행기를 사 드릴게요!" 비행기는 고사하고 자기 먹고 사는 것만 신경쓰고 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평생 60억 원 정도는 헌금을 하겠다고 하면서 사업을 벌였다. 사업이 너무 망해서 내가 엮고저게 가서 팔아주고 왔다. (웃음) 동기가 자기의 성공이지 않은가? 부자 되는 것 아닌가? 백지수표를 남발하지 마라. 우선순위를 찾아야 한다. 진실해야 한다. 참된 헌신이 있기를 바란다. 이런 변명에 대해 사무엘이 한 말이다. 사무엘상 15:22-23에,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邪神)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와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원한다.

(2) 사울왕은 악령이 임할 정도로, 나라를 위해 목숨 걸고 싸운 다윗을 시기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다윗에게 여인들은 뒤돌면서 말했다. "사울은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라." 노래를 불렀다는 것은 누가 작사, 작곡을 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울왕의 귀에까지 들렸다. 다윗이 방탄소년단처럼 된 것이다. (웃음) 여자들이 문제다. 아이들이 되었다. 여기에 다 무너진다. 연예인들은 귀신 보고 있고 힘들어하고 공황장애를 겪고 있는데 말이다. 복음이 정말 필요하다. 아이들 연습생 한 사람과 이야기해 봤다. 영적으로 너무 힘들어한다. 그런데 청소년들이 그런 것을 모르고 환호한다. 이 노래를 들은 사울이 뭐라고 하는가? 사무엘상 18:8에, 불쾌하고 심히 노했던 것이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사무엘상 18:9에,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다." 사울은 질투심으로 인해 나라에 가장 필요한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한다. '전쟁에 저도 좋다. 다윗은 죽여야 한다.' 얼마나 어리석고 독한 마음인가.

(3) 사울은 이후에도 다윗을 쫓아다닌다. 멸망시키겠다, 죽이겠다 하는 마음이 과연 사탄의 역사이겠는가, 성령의 역사이겠는가.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다. 그 마음과 생각을 누가 지배하는가? 흑암 세력이다. 우리는 빛을 가지고 흑암을 몰아내고

참된 해방, 참된 승리를 알려주어야 한다. 사람을 계속 죽이려 하는 것은 사탄의 영에 지배를 받는 사람이다. 사무엘상 18:11에,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두 번 피하였다.” 다윗이 동작이 엄청 빠르다. 사울이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큰 사람이다. 그 사울이 다윗 코앞에서 창을 던졌다. 그러나 다윗은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다.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곰을 쓰러뜨렸다고 했다. 사울은 위기 앞에서 여호와의 목지 않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다. 사무엘상 28:8-11이다. 여러분, 왜 짐승이 찾아오는가? 미래가 불안하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를 계획하고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란다. 협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실례. 문제가 와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란다. 정치인들이 그래서 대단하다. 어렵고 힘들고, 떨어졌는데 또 다시 도전하고 기다리고.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좋은 지도자들이 되도록 기도해야 한다.

2. 다윗왕이 축복받게 된 이유

큰 두 번째로, 다윗왕은 왜 축복을 받게 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1) 첫째, 다윗은 소년시절에, 양 한 마리로 들짐승들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끊임 없이 돌 던지는 연습을 했다. 시편 78:70-72에, 다윗은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의 은혜를 받은 램뎀이었다. 개역한글판 번역을 보면, ‘그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교함으로’ 양을 쳤다고 했다. 사무엘상 17:34-35에 보면, 다윗은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길 정도로 열심히 연습한 것이다. 이유가 무엇인가? 장군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다. 골리앗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다. 아버지의 양을 지켜야 하는데 사자나 곰이 오는 것이다. 형들은 도망갔어도 다윗은 책임감을 가지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양을 지키기 위해서 단련하고 연습한 것이다. 곰이 얼마나 빠르는지 모른다. 곰한테 한 대 맞으면 죽는다. 그것을 피하고 이기려고 하면 얼마나 순발력이 길러졌겠는가. 그래서 사울의 창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이다. 골리앗이 40일 동안 하나님과 그 백성을 모욕하고 있는데 아무도 골리앗과 겨루어 싸워 이길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다. 그때 전쟁터에 있었던 형들에게 아버지의 심부름을 온 다윗이 이것을 본 것이다. 자기가 싸우겠다고 한 것이다. 사울이 자기 갑옷과 칼을 줬는데, 너무 불편하니까 안 입겠다 하고, 자기가 하던 대로 물땀통 다섯 개를 들고 간 것이다. 그것을 가지고 달려가면서 집어던졌다. 얼마나 세게 던졌는지, 이마에 박혔다고 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된 게 아니다. 돌을 확 집어던졌더니 하나님이 뒤에서 손으로 밀어서 박히게 한 것이 아니다. (웃음) 어려서부터 계속 연습했던 것이다. 자신이 있었던 것이다. 덩치가 클수록 좋다. 과녁이 크지 않다. 사무엘상 17:34에,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키기 위해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 새끼를 물어간다면, 내가 따라가서.” 우리는 도망갈 텐데, 왜 따라가는가. (웃음)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치고자 하면, 그의 수염을 잡고 그를 쳐죽였나이다.” 사자는 수염을 잡으면 힘을 못 쓰는 것이지. 나도 케냐 선교 가면 사자의 수염을 한 번 잡아볼까 생각하고 있다. 혹시 내가 안 돌아오면 사자에게 물린 줄 아시면 된다. (웃음) 가만히 살펴보니가 사자의 수염이 있다. 이것은 실전 이야기다.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마음과 정성을 다했다. 그러다가 기능 서밋의 응답을 받게 된 것이다.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가장 상징하는 인물이 다윗이다. 다윗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다윗은 그러면서도 가장 훌륭한 리더의 상징이었고, 또한 성도의 상징이었다. 쓰러지고 넘어졌는데 회개하고 다시 쓰임받지 않는다. 여러분, 다윗보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비록 양을 지키는 작은 일이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천명으로 붙잡은 것이다.

(2)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까지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 그러나 다윗에게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두 번 있었다.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 속으로, 사울이 뒷일을 보기 위해서 홀로 들어왔다. 죽일 수 있는 기회였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인 임무를 해할 수 없다 하여 옷자락만을 잘랐다. 생각해 보면 비겁한 일 아닌가. 다윗은 정정당당한 사람이었다. 또 한 번은, 사울이 다윗을 쫓다가 피곤해서 쓰러져 자고 있었다. 모든 경호하는 병사들도 마찬가지로였다. 그때 다윗이 침투해 들어온 것이다. 창으로 그대로 찔러 죽일 수 있었다. 그러나 죽이지 않고, 옆에 있던 창과 물동이만 들고 간 것이다. 그래서 멀리 산에 올라가서 사울을 바라보며 외친다. “사울왕이여,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나이다. 여기 물통과 창을 보옵소서. 왜 나를 죽이려 합니까.” 사울이 변덕도 심하다. 눈물을 흘리면서, “다윗아, 내 아들아.” 그러고 있다. 제정신이 아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사이코 기질이 있는 사람이 충분히 많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복음 중심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3) 다윗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진심으로 회개했기 때문이다.

(4) 다윗이 복음의 사람으로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시와 찬양으로 하나님과 깊은 영적 소통을 했기 때문이었다. 다윗은 양을 치면서 시간이 많이 남지 않나?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깊은 기도를 하는 습관이 되어 있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하나님께 묻는 습관이 되어 있었다. 나도 그렇고, 우리는 대부분 내 생각, 내 판단을 해

놓고 나중에 후회한다. 성경에 보면, 죄 중에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내 체질, 내 판단, 내 윤리 도덕적인 기준으로 다 해놓고, 나중에, ‘아,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 하면서 후회한다. 여러분, 평소에도 주님과 대화하고 묵상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묻고, 성경 말씀대로 결정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그러니까 평소에도 깊은 묵상하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한다. 기도하고, 여러분, 정말 그렇다.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해 보라. “하나님, 이런 상황이 이렇게 이렇게 발생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속에 다 감동을 주시고 바른 진리의 말을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떠오르게 하신다.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 것이다. “모든 염려를 내게 맡겨 버려라.” 그 순간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내 마음에는 참된 평안이 오는 것이다.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결론 : 사무엘상 속에 있는 메시지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사무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이겠는가?

(1) 첫째, 우리 안에 있는 사울왕을 다윗왕으로 바꿔 버리라는 것이다. 우리는 어떤 때는 마귀 같은 생각을 한다. 어떤 때는 친사같은 생각을 한다. 중심을, 기준을 바꿔야 한다. 탐욕을 따라가고, 권력을 따라가고, 이권을 위해서라면 사람도 죽이는 그 마음이 사울 뿐 아니라 우리 속에도 있다. 말씀과 기도를 놓치면 우리도 그 악령의 길로 가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겠는가? 악령 대신 성령으로 우리 영혼을 채우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꿀 때 가능할 줄 믿으시기 바란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되지만, 인간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자신을 낮추시고, 인간의 형체를 입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스도의 겸손과 순종과 사랑을 배울 때,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그 복음을 붙잡을 때, 사울과 같이 교만하고 악한 마음과 생각이,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변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란다.

(2) 두 번째로, 성심위 하나님을 참된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란다. 사실상 역사의 어떤 왕 중에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참된 왕은 없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나라와 민족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라와 민족과 개인을 최고로 축복하실 것이다. 인류 역사를 보라. 하나님을 잘 믿는 국가가 다 선진복지국가로 되었다. 영국도 선교하고 전도할 때 그 나라가 일어나게 되었다. 복지가 잘 된 네덜란드, 스웨덴 같은 나라를 보라. 왜 그렇게 잘 사는가 했는데, 우리 누님이 프랑스의 개교회에 갔다가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 프랑스에서 천주교에 의해 핍박을 받던 성도들이 참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북쪽으로 도망갔다는 것이다. 그들이 기도하고 나라를 세웠으니 세계 최고의 선진복지국가로 된 것이다. 이들이 넘어가서 영국을 부흥시켰고, 그들 중에 더 잘 믿고자 한 사람들이 건너가서 세운 나라가 미국이었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다. 역을하면 성공해야 한다.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다. 복음의 나라가 되는 것이다. 전 세계를 살리는 민족이 되도록 기도하자.

(3) 하나님의 자녀는 다윗처럼 지극히 선한 선택을 해야 한다. 우리는 악으로 악을 이길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사람이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다. 내가 역을한 일을 당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는가. 복수해야 하지 않겠는가? 싸우고, 뒤통수 때리고, 사기치고, 죽이고, 편당 만들고, 양보하지 말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옵소서. 악으로 악을 대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럴 힘을,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 후대들이 그런 인물들이 일어나야 하지 않겠는가?

(4) 마지막으로, 다윗처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을 때 다른 모든 것은 따라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란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고백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이다.” 여러분, 돈이 없어서 부족한가? 집이, 땅이, 권력이, 지식, 학벌이 없어서 부족한가? 아니다. 여호와 한 분으로 만족할 때 여러분 가정, 가문에는 모든 것이 따라올 것이다.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 미래와 우리 후손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그 축복과 응답의 주역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한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중요한 시간표에, 사울에 대한 이야기,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미래의 방향을 다시 한 번 우리가 중요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며, 오직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성령충만과 깨달음과 지혜로 함께 해 주옵소서. 우리나라 모든 정치, 경제, 문화 분야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좋은 지도자들이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 중요한 사역에 우리 교회, 우리 후대, 한국교회가 가장 귀하게 쓰임받도록 긍휼히 여겨주시며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